



5월은 장미의 계절 16일 개장한 광주시 서구 풍암공원 장미공원에 색색의 장미를 보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5·18 슬픈 사연’ 기념식 무대 오른다

18일 민주묘지...이귀복씨 8살 아들 잃은 슬픔 영상에
계엄군 고문 피해 전옥주씨 추모공연서 가두방송 재연

힌즈페터 부인 등 은인가족 초청

1980년 5월19일 초등학교 1학년 이창현(당시 7세)군은 집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38년이 지난 지금도 아버지 이귀복(82)씨는 전국을 떠돌며 아들을 찾고 있다. 5월의 첫 희생자 고(故) 김경철씨, 임신부 희생자 최미애씨의 유족도 함께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군의 이야기가 시네라마(3개면으로 구성된 와이드 스크린) 형식으로 전달되며 5·18 당시 가두방송을 진행했던 전옥주(여·68·본명 전춘심)씨

가 추모공연에 출연하는 등 5·18 당사자의 이야기가 재조명된다. 광주시 서구 양동에 살던 이군은 광주에 휴교령이 내려진 19일 오전 집을 나서 귀가하지 못했다. 이귀복씨는 아들을 찾기 위해 병원과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들리는 곳마다 모두 찾아다녔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군사기록 등에서 이군 토래 어린이의 총기사랑 자료가 확인되면서 이군은 지난 1994년 5·18 행방불명자로 인정받았다. 이씨는 아들이 양동다리에서 계엄군의 총에 맞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군은 시신 없이 유품만 국립 5·18 민주묘지(1 묘역 10~44)에 안장돼 있다. 묘비에 쓴 ‘7세의 나이로 학교에 다닌 지 2개월, M16 총상, 공수부대, 내 아들 창현이

를 아버지 가슴에 묻는다. 망월동에 고이 잠들었다’는 비문은 이씨의 한을 대변해 주고 있다. 농아인이었던 김경철(당시 28세)씨는 구두담이로 생계를 유지하다 5월18일 오후 충장로에서 계엄군에 붙잡혔다. 말을 못하는 김씨는 수화로 “나는 청각장애인이고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호소했지만, 계엄군은 오히려 장애인 흉내를 낸다며 무자비하게 구타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19일 새벽 사망했다. 사인(死因)은 후두부 타박상에 의한 뇌출혈이었다. 임신 8개월이었던 최미애(당시 23세)씨는 5월 21일 오후 전남대 인근으로 남편을 마중 나갔다가 계엄군의 총격에 관통상을 입어 사망했다. 뱃속 태아도 곧 세상을 떠났다. 5·18의 대표적 인물인 전옥주씨는 보안대에 붙잡혀 간첩으로 몰리며 무자비한 고문을 당했다. 지난 1988년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잡지 ‘예향’과의 인터뷰에서 “1980년 5월 26일 붙잡혀 10일 동안 고문을 받을 때 조사관들이 자신을 ‘모란꽃’(암호명)으로 불렀다”며 “조사관들은 ‘모란봉(북한 간첩교육기관 지칭)에서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고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기념식에서 5·18가두방송을 재연하며 현장감을 더한다. 기념식에는 이군을 포함해 첫 번째 희생자 고(故) 김경철씨,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 박관현 열사, 임신부 희생자 최미애씨의 유족들도 참석한다. 외국인 은인의 가족들도 기념식을 함께 한다. 영화 ‘택시운전사’를 통해 알려진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의 부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5·18의 진실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고(故) 찰스 베츠 헌틀리 목사의 부인 마사 헌틀리, 고(故) 아놀드 피터슨 목사의 부인 바바라 피터슨 등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미투 폭로’ 서지현 검사 ‘들불상’

들불열사기념사업회 “여성인권 신장 계기 마련”

법무부 고위 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해 국내에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사진) 정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가 들불상을 받는다. 16일 들불열사기념사업회는 제13회 들불상 수상자로 광주 출신인 서 검사를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서 검사가 성폭력과 성차별 문제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했다”며 “대담한 결단과 용기로 여성인권 신장 계

기를 마련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들불상은 1970년대 말 노동운동을 하며 5·18 민주화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들불야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했다. 신영일, 윤상원 씨 등 들불야학 출신 열사 7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인권·평등·평화 발전에 헌신한 개인 또는 단체를 시상한다. 시상식은 오는 26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역사의 문에서 열린다. /김용희기자 kimyh@

서울만 근무하는 귀족검사 없앤다

법무부, 검사장 전용차 폐지 등 인사 개선안 발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 서초동을 중심으로 주목받는 근무지에만 오래 머무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 전용차 제공 등 검사장에 대한 차급 예우도 폐지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과전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평검사 근무 기간에 서울과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3~4회

로 제한하고 서울과 지방 간 경향(京鄕)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정하게 기회를 주고 지방 검찰청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또 법무부·대검찰청 근무를 마치고 지방 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길 때는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보내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 검사를 고루 배치하기로 했다. 실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우대정책도 마련됐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7
해질녘 19:31

달돋이 06:59
달질 21:25

우산 챙기세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22/27	보성	19/24
목포	20/24	순천	20/25
여수	19/23	영광	20/26
나주	21/26	진도	19/25
완도	20/25	전주	22/29
구례	20/26	군산	20/27
강진	21/25	남원	21/27
해남	20/25	흑산도	16/21
장성	21/2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남동~남 0.5~1.5	남동~남 0.5~1.5
남해 앞바다	남~남서 1.0~2.0	남~남서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남~남서 0.5~1.5	남~남서 0.5~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남서 1.0~2.5	남~남서 1.0~2.5

◇생물지수

식중독	경고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좋음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8:39 20:45	03:29 15:33
여수	04:06 16:15	10:15 22:49

◇주간 날씨

18(금)	19(토)	20(일)	21(월)	22(화)	23(수)	24(목)
☁	☀	☁	☁	☁	☁	☁
20/25	17/24	13/23	16/23	15/25	15/26	15/25



완도해경이 지난 15일 완도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의 포획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완도해경 제공>

완도 앞바다서 4.5m 밍크고래 혼획

번식 위해 서해로 이동...멀치 잡는 그물에 걸려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가 완도 해상에서 멀치 잡는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밍크고래는 우연히 다른 어종과 함께 걸리는 ‘혼획’(混獲)으로 잡혔다. 16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30분경 완도군 보길면 보옥항 남서방 해상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낭장망(멀치 잡는 그물)에 죽은 채 걸려있는 것을 7.31t급 W호(완도선적) 선장 박모(58)씨가 발견했다. 길이 4.5m, 무게 1t 가량의 밍크고래는 해경의 확인 결과 외형상 자살 등의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처음 발견한 박씨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하고 인계했다. W호 선장 박씨는 밍크고래를 율산 수협에 위탁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동해에서 서식하는 고래가 번식을 위해 봄철 서해로 이동하면서 혼획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경에 신고해야 하고 구조 등 가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eichung@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062) 362-3336

산수오거리지점

돌고래지점

대통령령 제28838호 농업진흥구역

(2018년 5월 1일 시행 대폭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가능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3,000평 이상)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개발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